

2015-2016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땡
활동 보고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땡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 Dong

핑동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13년 5월 '무지개청소년세이프스페이스' 프로젝트 첫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해외모금을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센터건립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많은 후원인들의 도움으로 1년여 만에 20평 남짓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2월부터는 상담과 위기지원 활동을 시작하며 꾸준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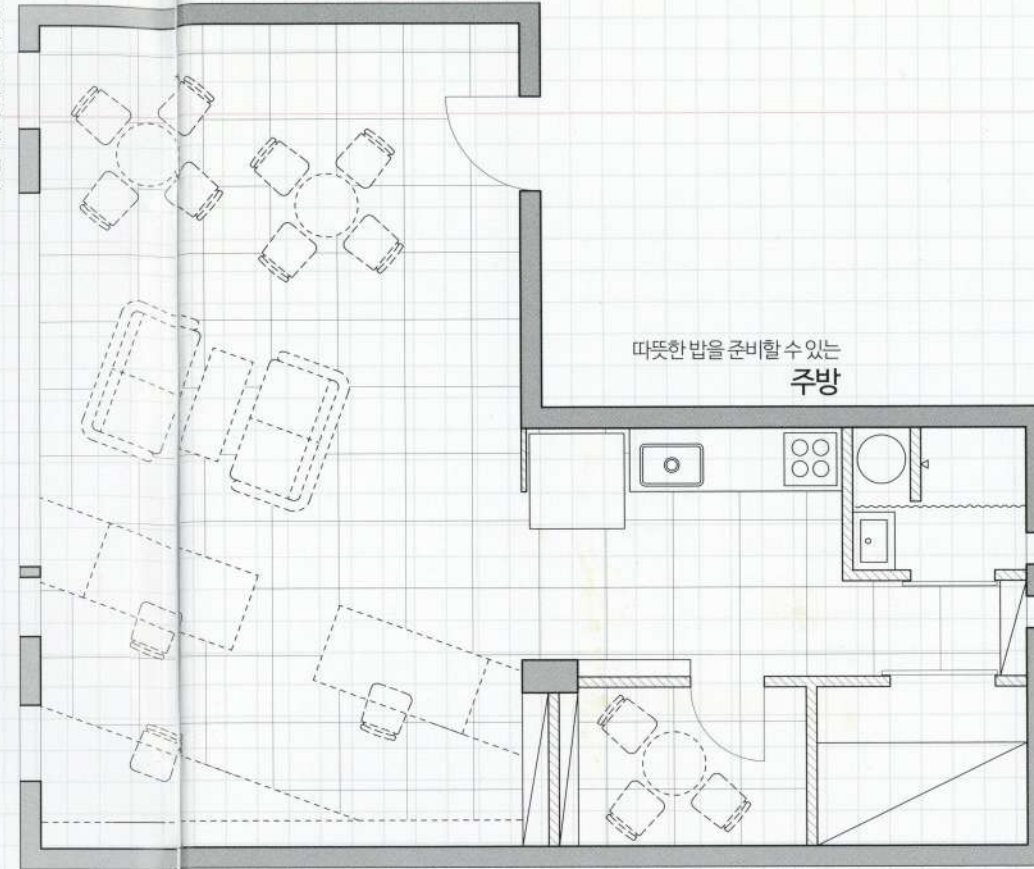
핑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문 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핑동 공간

핑동에 놀러오세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는 공간
라운지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해요
상담실

피곤한 몸을 잠시 기댈 수 있는
침실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실

목차

땡동을 소개합니다	2
감사의 글	5
땡동 활동 돋보기	6
땡동, 독립을 꿈꾸다	14
땡가땡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18
땡동의 '특별' 프로젝트	20
사진으로 만나는 캠페인 이모저모	22
변화를 만들어가는 땡동	24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	26
땡동 1년 살림살이	27

감사의 글

땡동 핸드폰에서 “카톡” 소리가 울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말 걸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더니 곧 안심이 되었는지 자신이 경험했던 속상했던 일, 혼자 끔찍 앓던 고민을 털어 놓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땡동에 문을 두드렸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늘 고맙다고 말합니다.

2년 전 땡동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할 때만 해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어떤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올 지도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땡동의 비공개 상담게시판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더 많았습니다. 함께 마음을 풀이며 잠잘 곳을 찾거나, 필요한 연계기관에 동행하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맙다고 말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땡동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다행이다’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땡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판단 없이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들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이미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배제되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존재 취급받는 것도 모자라 성소수자 혐오적 발언에 침묵해야 하고 아닌 척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를 배제한 성교육 표준안이 도입되었고, 교사의 혐오발언과 또래친구들의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문을 두드려주었던 용기와 지지자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17년은 아름다운재단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의 마지막 해입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모아야 하고요 ^^ 처음으로 발행하는 활동보고서에는 땡동의 활동역사를 소개하고, ‘홀로서기’를 잘 하겠다는 다짐을 담으려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성소수자 단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웃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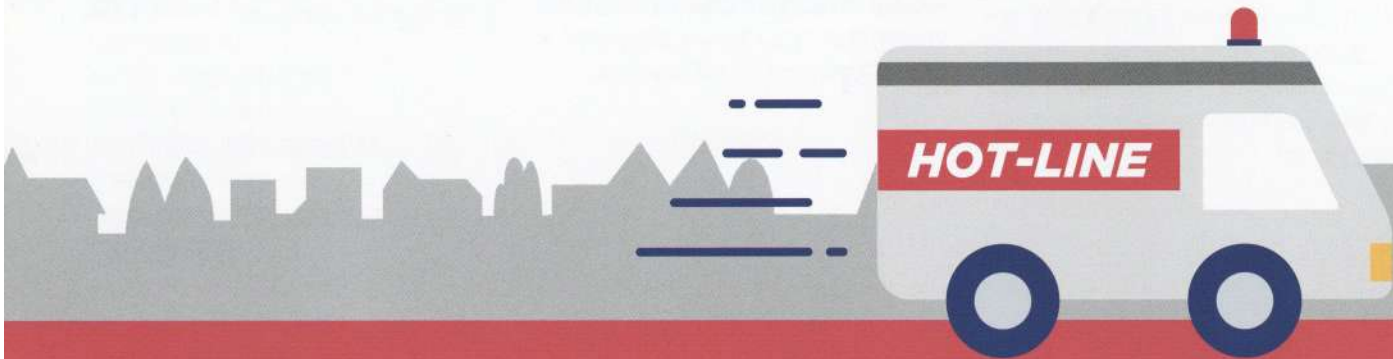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운영위원장
정율(정민석)

땡동 활동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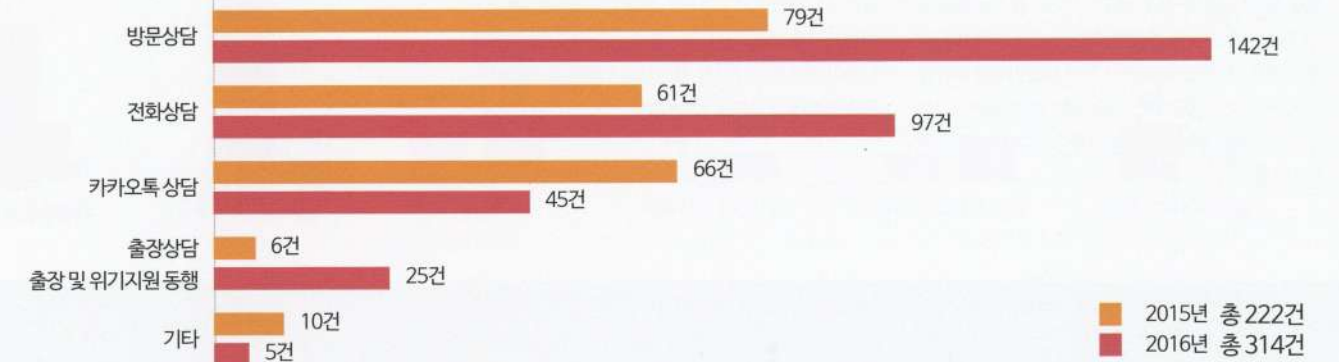
HOT-LINE 상담과 위기지원 활동

땡동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HOT-LINE 상담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2015년 2월부터 상담으로 시작했으며, 방문/전화/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2015년보다 2016년 상담건수가 더 늘어난 것은 땡동의 존재가 더 알려지게 된 것도 있었지만, 위기지원과 다회기 상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의뢰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수도 2015년보다 늘어났습니다. 17-19세의 내담자가 주로 땡동을 찾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20-24세의 청소년 비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땡동이 나이를 기준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담하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내담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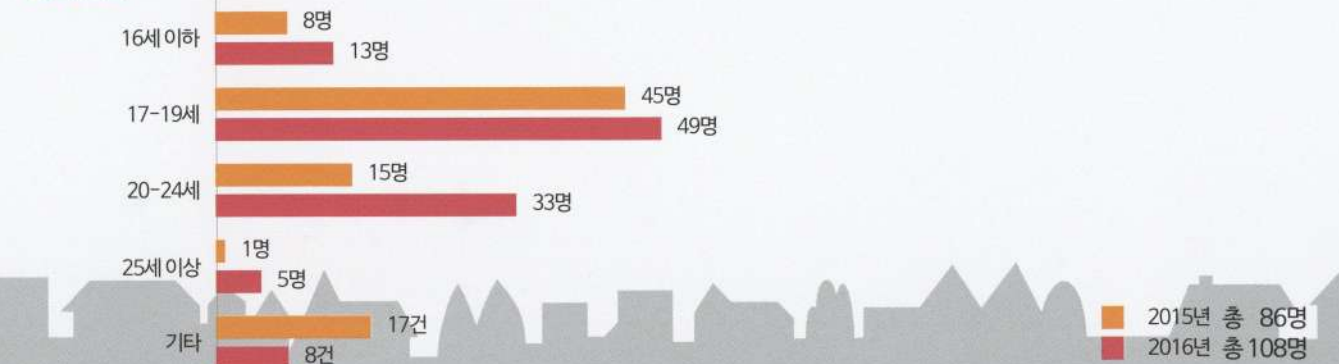


상담건수



※ 기타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접수된 상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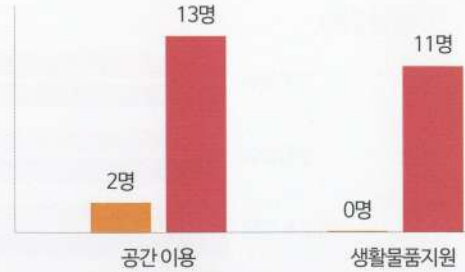
상담인원



※ 기타는 연령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양육자/교사/상담사 등 청소년기관에서 상담을 의뢰한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관계를 맺은 내담자 가운데 더 큰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자의적인 판단 대신 내담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수가 2015년 24명에서 2016년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문상담을 통해 간식, 식사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해 땃동이 제공하는 7가지 지원항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땃동이 제공하는 7가지 위기지원서비스



땃동공간 이용

땃동을 방문하면 샤워실, 세탁기, 낮잠방, 컴퓨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물품지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소의 존엄성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속옷, 양말, 콘돔, 생리대, 위생용품, 세면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쉼터연계 및 주거 지원

당장 잠을 자고 생활할 곳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는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선의 거주지를 검토한 후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쉼터를 연계합니다. 아쉽게도 땃동 문을 여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상담 및 지원

소화제, 진통제와 같은 급약은 땃동에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벼운 감기부터 종합검진, 성병 및 HIV/AIDS검사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땃동이 구축한 의료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료 연계를 제공합니다.



법률상담 및 지원

민형사상의 사건 및 법/제도/정책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심리상담

가족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문제, 트라우마 극복, 자살위기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유형별 전문심리상담을 연계합니다.



긴급 생활비 등 지원

땃동은 원칙적으로 금전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의 교통비, 생활비조차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무국 논의 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땡동 활동 돋보기

청소년 성소수자들만 올 수 있는 특별한 밥상모임 '땡동식당'

토요일 토요일은 밥먹자 '땡동식당'은 오늘의 셰프가 직접 준비한 식사를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식사 후에는 보드게임, 영화감상, 인 권교육, 산책 등 다양한 놀이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 끼 식사나눔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로부터 제4회 무지개 콘텐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총 35회 땡동식당이 개최되었고, 48명의 셰프, 183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주 진행되었던 땡동식당을 격주로 바꾸고, 더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월 1회 참석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0회 땡동식당이 개최되었고, 34명의 셰프, 161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떡만두국, 제육볶음, 또띠아 구절판, 함박스테이크, 바비큐, 삼겹살, 해물부추전, 페스토파스타, 카레 돈까스, 돼지갈비찜, 부대찌개, 오야코동, 매운크림파스타, 두부버섯스테이크, 버섯라이스, 오믈렛... 2016년 오늘의 셰프들이 만들어 준 음식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맛있겠죠? ^^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리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땡동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밥 먹고
재미있게 수다 떨고
놀이 좋았어요

같은 성소수자끼리 모여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나 이외에 다른 성소수자들
이렇게 많이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처음 걱정하는 다르게
너무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땡동 활동 돋보기

거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다 ‘땡동포차’

거리이동상담은 거리에서 직접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땡동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주 1회 신림동 봉림교 부근에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가 운영하는 거리이동상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총 36회 참여하였고, 이곳에서 146명의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거리이동상담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청소년 기관과 연계활동을 함으로써 땡동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종로구 낙원동 일대에서 땡동의 독자적인 거리이동상담 활동인 땡동포차를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주 갈만한 노래방, 커피숍, 골목 등을 돌아다녔고, 4월부터 월 1회 땡동포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당을 거점삼아 간식을 만들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세팅하며, 중간 중간마다 낙원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성소수자라고 추측되는 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물론 겁을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총 9회 땡동포차를 진행하였고, 총 181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중 10명은 상담으로 이어져 필요한 서비스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땡동포차에서는 핸드폰 충전도 하고, 보드게임을 하며, 신나게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콘돔/양말/칫솔치약/핸드크림 등 필요한 생활물품을 자유롭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2017년은 월 1회 땡동포차와 월 1회 패트룰(거리에서 직접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리이동상담은 주로 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자원활동가와 활동비용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땡동포차



땡동포차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땡동, 독립을 꿈꾸다

땡동, 재정자립도 어디까지 왔니!

땡동은 회원/후원회원들의 후원금과 아름다운재단 인 큐베이팅 사업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개최 후 남은 수익금을 전달해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 글로벌기빙재단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해외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구글코리아와 같이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업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017년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의 마지막 해로 2018년부터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상황에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연 천 백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있어야 안정적인 운영될 수 있습니다. 땡동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정기 후원인으로 함께해주세요!! 땡동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매월 1회 뉴스레터를 발송해드립니다.

정기후원자 수

2015년



266명

2016년



380명

정기후원금

2015년



3,127,000원

2016년



5,053,000원

(현재 재정자립도 46%)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0-529880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http://www.ddingdong.kr/xs/donate>

적은 돈에서 큰 돈, 한꺼번에 내든지, 정기적으로 내든지 형편과 마음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지만, 2017년 가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땡동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정기후원인 1004명이 모이면 땡동에 생기는 여섯 가지 변화들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해 24시간 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
정기후원 1,004명이 모이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어요!



01

문 여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주5일 운영이 주7일로
바뀔 수 있어요!



02

거리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동시에 상담지원활동을
할 수 있어요!



03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땡동을 만날 수 있어요!



04

위기상황의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단 하루(24시간)지만
아간 지원이 가능해요!



05

평일에도
점심, 저녁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06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유일한
청소년기관으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요!

땡땡, 독립을 꿈꾸다

2016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땡을 정기 후원해주신 고마운 분들

AKISHIN, Anna, Daniel, everclear&mogo, fragile, JasonFab, jesustobe, jjabon, kai, KEY, lufu, Martinkim, MECO, MJ, MS, orsen, river, Starsky, sunny, sunshine, terencekim해밀엿, TonyPark, yoy, yure, 가라켓, 가은, 가일, 강근호, 강물요나, 강민경, 강준원, 강호, 개미, 겨울, 겐다언니, 고나래, 고승우, 곰곰, 곰곰이, 광명단, 광이경, 광어, 권동해, 권영민, 권영은, 권현경, 그늘, 기운, 김광이, 김권주, 김기연, 김대광, 김대환, 김대희, 김도옥, 김도화, 김동네, 김미선, 김미정, 김민수, 김민용, 김보여, 김산희, 김삼영, 김수환, 김순남, 김승섭, 김사은, 김아드, 김아무개, 김영순, 김우, 김유라, 김유리, 김은희, 김일중, 김종일, 김충철, 김지민, 김지학, 김지혜, 김찬영, 김한솔, 김현우, 김효주, 까멜, 강통, 꼬까새, 나기, 나라, 나랑, 나영, 남승호, 남웅, 노가리, 노은아, 노혜련, 단청, 댄, 더지, 동동, 동이, 동희, 두진석, 디아나, 딱이, 토잉, 땡땡응원, 라라, 레너드, 레이, 로사, 루니이모, 루인, 류은찬, 류이, 류정미, 류현진, 리인, 마루, 망치야, 모기, 모랭이, 모리군, 몬레이, 문미정, 문익태, 물병자리, 뭉치네, 뭉, 뭉롱, 미슈깁, 미지, 민, 박광훈, 박상미, 박성민, 박성준ivancity, 박세림, 박소영, 박시어, 박윤철, 박은경, 박장군, 박재영, 박주희, 박지원, 박테오, 박혜세, 방충만, 방혜린, 배미영, 백구구, 백도, 백선행, 백원기, 버섯, 변미혜, 별일없이산다, 복주, 봉레오, 불한당, 블루그린, 비밀돼지, 빈집, 뽀유희, 상은/선아, 상훈, 새록, 사리깁, 서은주, 서정례, 서정현, 석상열, 성북아저씨, 세영, 소리, 소유, 소희, 손미희, 숨, 송현민, 수분, 수인, 수킴, 수현, 스머프, 슬아, 승, 신동화, 신부용, 신상희, 신유정, 신유진, 신은정, 신이, 신진호, 신환, 심수지, 아론, 아람, 아이몽, 아일린, 안선희, 안영신, 안을후, 안은경, 애니지연, 애연, 아롱, 야생화, 양지용, 어나더미, 엄기호, 에비앙, 여름바다, 연, 열린문공동체교회ODMCC, 엄지윤, 영은보미, 영흔빠진변태, 오매, 오성진, 오소리, 오이, 오주영, 완두, 왕글, 우승연, 우철운, 원근, 웨하스, 유결, 유경, 유성민, 유연희, 윤정선, 윤정원, 윤진, 윤한기, 은날, 응수웅, 응이, 이경미, 이구성, 이기규, 이나영, 이도연, 이배원, 이서, 이선화, 이수련, 이승현, 이심지, 이아련, 이유진, 이유진, 이윤덕희, 이은용, 이은준, 이인섭, 이재성, 이주연, 이주환, 이준영, 이지혜, 이진수, 이현진, 이형수, 이혜민, 이혜정, 인디, 임고은, 임보라, 임슬기, 임승관, 임유청, 임태훈, 잇을, 작은나무현정, 장병권, 장서연, 장소영, 장수정, 장은송, 전경현, 전민식, 전윤화, 전하연, 전훈, 정경순, 정설경, 정소연, 정승혜, 정안, 정을, 정위지, 정희아, 제로늬, 제리, 제이미, 조나단, 조민정, 조상필, 조우리, 조원진, 조은혜, 조이수현, 조이스, 조정우, 조혜림, 조혜영, 조혜인, 조화, 준모, 지인, 진, 진호, 쫄이, 차승환, 차정철, 찰리, 참새, 채민진, 초량, 초이, 최연두, 최의현, 최재혁, 최현모, 최현정, 최홍복, 캔들이다니엘, 케이, 쿤민, 퀴트, 타리, 태광, 테이트, 토끼, 토리, 포카칩오리지널, 폴, 하니, 하준, 학인, 한바다, 한솔누리, 한송이, 한송이, 한잠, 한진현, 허개진, 허정범, 허호인, 현석, 현정희, 현주, 해신, 호두빵, 호림, 호빵서나, 홍석민, 홍시, 홍의표, 홍지유, 홍혜선, 황박재경, 황영지, 황지성, 황지윤, 훈창, 흐르는물, 화구

※ 2016년 12월 기준으로 땡땡을 정기후원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의 소중한 이름입니다. 혹시라도 명단에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핑가핑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명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바로 자원활동가들입니다. 자원활동가 이름이 핑가핑가인데요. ^^ 이 이름은 '명동의 가치를 명동과 같이 나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핑가핑가는 명동의 모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체크하고, 회계 영수증을 정리하기도 하며, 명동식당/명동포차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화도 나눕니다. 퀴어문화축제와 같이 명동을 알리는 외부 캠페인이 있는 날이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핑가핑가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최소 1년 동안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핑가핑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석슈얼리티 교육, 페미니즘으로 청소년 만나기, HIV/AIDS 인권 교육 등이 진행되었고, 2016년에는 상담사례를 통해 보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인권감수성/젠더감수성으로 청소년 만나기 등과 같은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활동 시간을 배정하되 격월로 진행되는 정기모임에서는 참여했던 활동에 대해 소감을 나누고, 좋았던 점/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뒤쫓아도 쫓~하게 하지요!!

핑가핑가 활동으로 명동과 만나는 것은 어떠세요?
2017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 2월, 7월 활동지원 | 활동 기간 중 식사 및 교통비(야간 활동시 택시비 포함) 제공
활동가 수료증 및 자원활동가 인정서 발급 (활동시간 80시간 이상)
우수활동가 포상

- 핑가핑가 활동 참여후기 중에서

“나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첫 모임 때 숙제에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 명동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두었습니까.
얼다섯 살에 했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구나하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문준원 ‘이제 많이 달라져서 차별이 없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때에도 종종 있곤 하는데요.
성소수자들에게 향하는 오히려된 시선과 욕설,
퀴어야웃을 하기 조심스러운 사회 분위기
아직도 상기하면 먹먹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섰던 무지개 공간.
기대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본연의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자 다짐하고,
한 동아리에서 게이미웃을 하고 활동했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때의 1년은 정말 기쁜 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틀린 사람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땡동의 '특별' 프로젝트

땡동은 매년 특별 프로젝트를 하나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데이캠프 사람책 도서관 “너에게 들려줄게”를 진행하였고,



2015년, 땡동 데이캠프 사람책 도서관 “너에게 들려줄게”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성소수자 사람책 8명을 모시고, 성소수자로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왔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무엇인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 1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참여자 소감 중에 “상상도 못했던 분들과 만나서 신기했다” “직업적인 부분을 들어서 좋았다” “성인 쿼어랑 대화해보니 내 생각과 비교해볼 수 있었다”와 같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사람책 1권 당 2~3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친밀감을 가지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프로그램, 한 번에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프로그램, 우리 또 만날 날이 있겠죠? ^^

사람책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MTF트랜스젠더 웹디자이너
레즈비언 자동차 정비사
레즈비언 군인
게이 시인
FTM트랜스젠더 시민단체활동가
게이 교사
게이 항공사 승무원
바이섹슈얼 여성 상담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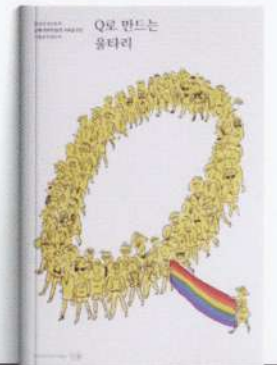
2016년에는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Q로 만드는 울타리」를 발행했습니다.

2016년,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보고서 “Q로 만드는 울타리”



청소년 성소수자 15명을 만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비롯해 가정과 학교, 또래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인터뷰 참여자들의 울림있는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모집기간에 59명이 지원할 정도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말하고 싶은 욕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 남짓 진행된 인터뷰 내용은 1년 동안 연구진들의 깊은 토론을 통해 “Q로 만드는 울타리” 자료로 발행되었습니다.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제언이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12,000원(우편료 포함)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청소년 성소수자 인터뷰를 지속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땡동에 연락주세요!!



사진으로 만나는 캠페인 이모저모

2015년

故 육우당 12주기 추모제

4월25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개최된 혐오와 차별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이상현 문화제”에 참석해 부스를 운영하고, 추모발언을 하였습니다.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IDAHO

5월16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아이다호 행동에 참석해 부스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땃동식당’ 컨셉으로 현장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참석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북무지개한마당 “함께 사니 참 좋다”

5월22일 성북구청 앞에서 개최된 성북무지개한마당을 공동주최하였고, 별도로 부스를 운영하며 성소수자에 관해 간단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6월2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텀블러, 버튼 등 후원물품을 판매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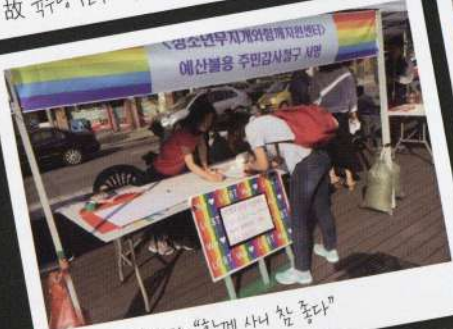
7월5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청소년 성소수자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땃동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하루 먼저 내려가 대구경북 지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 땃동식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故 육우당 12주기 추모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IDAHO



성북무지개한마당 “함께 사니 참 좋다”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



2015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2015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서울인천퀴어문화축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6 제17회 퀴어문화축제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

2016년

서울인권영화제

5월28일 성미산마을극장에서 개최된 서울인권영화제에 참석해 부스를 운영하며 #프라이드온 캠페인을 소개하고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였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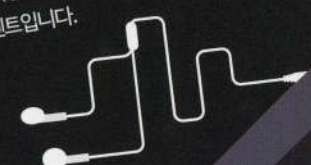
6월2일부터 8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개최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야외행사장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땃동을 소개하고,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였습니다.

2016 제17회 퀴어문화축제

6월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프라이드온 캠페인을 소개하고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였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무료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면서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

6월26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프라이드온 캠페인을 소개하고 기념 티셔츠를 판매하였습니다. #프라이드온 캠페인은 2017년 거리이동상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기념티셔츠, 버튼, 스티커 등을 판매한 모금이벤트입니다.



변화를 만들어 가는 평등



평등이 성북구를 터를 잡게 된 계기는 2013년 성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해 제안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자원센터」 사업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북구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아동친화 도시이기도 하고, 주민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등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성북구구협의회 등의 반발로 2014년 12월31일 최종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이후 성 북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했지만, 혐오를 민원으로 받아들이는 성북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평등은 지역주민들과 교육운동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해 성북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게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성북구에 위치 한 장수마을 마을전시관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 시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울시 한양도성과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별 적인 발언이 있었고, 진행팀은 이를 문제 삼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 고 10월16일 이 문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서울시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이끌어내 었습니다.

평등은 인권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삶이 나아질수록 있도록
목소리를 높ی겠습니다.

2016년 3월9일 향린교회에서 「전환치료(동성애치 유)는 폭력이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트랜스 젠더 청소년에 대한 전환치료 폭력사건을 지원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 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 워크를 발족했고, 그동안 전환치료 사례 수집은 물론 성소수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경험 설문조사 사업을 함 께 진행하였습니다.

11월3일 학생의 날에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교사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학생들을 지 원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2017년 시작부터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를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다양성이 훼손된 교육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 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요구합니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들



땡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자립’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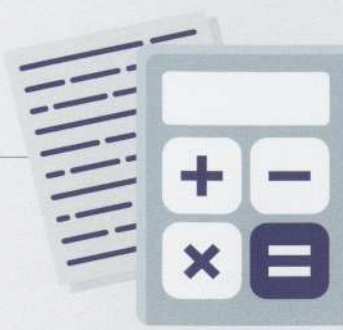
땡동은 꼭 경제적 자립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자기 삶을 상상하기보다 무기력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가정한 상황이나, 겉 더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경제적 자립마저 쉽지 않습니다. 땡동은 자기 내면의 힘을 키우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립’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땡동은 HIV/AIDS 감염인 청소년을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24세 미만 청소년 감염인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2015년 처음으로 신규 감염인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바텀알바’ ‘항문성교’ 운운하며 성소수자 인권이 에이즈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땡동은 성소수자 혐오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교육 정책과 에이즈 예방교육이 학교 안팎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에이즈 확산만을 부각시키는 지금의 상황은 예방은커녕 인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확진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더 커지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에 청소년 감염인에게 맞춰진 지원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땡동은 HIV 감염인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땡동 1년 살림살이



수입				
관	항	금액	구성비	세부 내용
기타	이월금	3,830,499	2.5%	2015년 이월금
후원금	일반 기부	28,213,132	18.0%	개인, 일반, 단체, 직할, 비정기 임금
	정기 기부	49,092,875	31.4%	NGOCMS 정기 기부
	행사 기부	4,258,500	2.7%	행사, 오프라인 모금 캠페인 기부
	해외 기부	6,307,782	4.0%	글로벌기부재단
후원금 합계		87,872,289	56.2%	
수입금	교육집필 수입	418,850	0.3%	
	프로젝트 수입	62,800,000	40.2%	아름다운재단, 법무법인 한결 지원
	판매 수입	1,212,000	0.8%	
수입금 합계		64,430,850	41.2%	
기타 (이자, 기타)		116,982	0.1%	
수입 합계		156,250,620	100.0%	

지출				
관	항	금액	구성비	세부 내용
인건비	급여, 상여금	52,622,800	33.8%	상임활동가 인건비 및 상여금
	복리후생비	8,221,000	5.3%	교통비, 식대 등 수당지급
	대표지원비	2,400,000	1.5%	대표 지원비
	퇴직금 적립비	4,805,000	3.1%	상임활동가 퇴직적립비
	보험비	7,181,660	4.6%	상임활동가 4대보험비
인건비 소계		75,229,460	48.4%	
운영비	임차료, 공과금	16,441,280	10.6%	임차료, 전기/수도/가스/건물 하수도 및 청소
	통신비	1,571,530	1.0%	위키지원 전화, 팩스, 카카오톡, SMS 충전
	발송비	117,860	0.1%	우편, 팩스, 택배, 택배
	지급수수료	3,260,260	2.1%	CMS,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소계		21,390,930	13.8%	
물건비	제작비	2,090,000	1.3%	#프라이드온 기념품 제작비
	구매비	2,828,005	1.8%	소모품, 사무 비품, 식품 구매비
	인쇄비	139,280	0.1%	도서, 리플렛, 자료집 제작 인쇄비
물건비 소계		5,057,285	3.3%	
사업비 (땡동)	교통속박비	1,312,642	0.8%	야간 근무 귀가, 청소년 구급지원 교통비
	행사비	3,092,160	2.0%	청소년 프로그램 및 모금 캠페인 행사비
	지원비	2,537,640	1.6%	교통, 통신, 거주, 의료 등 청소년 긴급 지원비
	회의비	3,406,283	2.2%	사무국, 상담사례, 운영위원회, 자원위원회 회의비
	연구비	2,759,000	1.8%	2016 기초조사 연구비
사업비 (땡동) 소계		13,107,725	8.4%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소계		25,184,772	16.2%	긴급지원, 땡동포차, 땡동식당, 연구사업 등
기타	수수료	13,400	0.0%	은행, 기타 결제 수수료
	대외협력비	406,000	0.3%	연대단체 후원, 대외협력 등
	운영적립금	15,000,000	9.6%	선택지원 및 위키지원을 위한 적립금
	기타, 환급	108,882	0.1%	오류 결제, 기타 결제, 아름다운재단 환급 등
기타 소계		15,528,282	10.0%	
지출 합계		155,498,454	100.0%	
잔액		752,166		

위기를 자금심으로!

땡동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02-924-1227
010-8844-2119



땡동119

카카오톡에서 땡동과 친구하세요!
친구찾기 > ID검색 > 땡동119검색 > 친구추가

문 여는 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
11:00~21:00

발행월 2017년 3월

퍼낸곳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

<http://ddingdong.kr> E_mail lgbtq@ddingdong.kr Tel 대표 02-924-1224 Fax 02-6969-5024

트위터 @DDingDong119 페이스북 [facebook.com/DDingDong119](https://www.facebook.com/DDingDong11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0-529880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땡동